

WEBVTT

00:00:08.095 --> 00:00:10.990
블로그 브랜딩 강사 성장열입니다.

00:00:14.546 --> 00:00:16.367
블로그 운영 잘 되고 있나요?

00:00:16.467 --> 00:00:20.215
지금까지 상당 부분 진행하면서
기본이 되는 내용부터

00:00:20.315 --> 00:00:25.035
핵심 팁이라고 할 수 있는
내용까지 이야기해 보고 있는데요.

00:00:25.135 --> 00:00:28.920
이번 시간은 아쉽게도
그 마지막 시간으로서

00:00:29.020 --> 00:00:33.554
콘텐츠를 어떻게 전파하고
효과적으로 블로그를

00:00:33.693 --> 00:00:37.332
알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
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

00:00:37.432 --> 00:00:42.335
자신이 힘들게 작성한 콘텐츠
저희가 키워드 시간에

00:00:42.470 --> 00:00:46.479
이야기하면서 조금 더
많은 분과 함께 보고

00:00:46.579 --> 00:00:50.947
전파,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에
대해서 이야기를 해 봤었죠.

00:00:51.069 --> 00:00:57.518
이번 시간은 키워드에 더해 SNS,
즉 페이스북, 카카오토리

00:00:57.618 --> 00:01:01.350
아니면 인스타그램과 같은
자신의 SNS 채널과

00:01:01.450 --> 00:01:04.969
블로그를 어떻게 연계해서
자신의 콘텐츠를

00:01:05.069 --> 00:01:08.424
전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
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

00:01:08.524 --> 00:01:12.179
최대한 많이 멀리
퍼뜨리는 것을 목적으로.

00:01:15.997 --> 00:01:22.912

간혹 블로그를 시작하는 분들
중에서 난 열심히 글을 쓰고

00:01:23.012 --> 00:01:27.457

전과를 했다고 생각하는데
왜 방문자 수가...

00:01:27.514 --> 00:01:31.083

이러면서 울상을 짓는
분들도 있습니다.

00:01:31.183 --> 00:01:33.691

물론 저 역시 경험했던 부분이고요.

00:01:35.480 --> 00:01:40.943

하지만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
생각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.

00:01:43.115 --> 00:01:47.295

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의
포스팅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

00:01:47.395 --> 00:01:53.713

이렇게 포스팅을 쓰고 그 포스팅에
관련된 노출이 됐다 싶으면

00:01:53.813 --> 00:01:57.109

아주 상단 부분, 즉 정점이라고
할 수 있을 정도로

00:01:57.244 --> 00:01:59.444

트래픽을 찍게 됩니다.

00:01:59.544 --> 00:02:04.087

하지만 이 글이 언제까지나
유효하지는 않죠.

00:02:04.187 --> 00:02:07.138

새로운 관심사가 나오거나
이슈가 터졌다면

00:02:07.238 --> 00:02:11.173

이 글은 묻히고 자연스럽게
해당 글의 트래픽은 낮아집니다.

00:02:12.916 --> 00:02:17.404

이렇게 해당 글의 트래픽이
낮아지면서 자신의 방문자 수

00:02:17.504 --> 00:02:21.641

그리고 블로그 콘텐츠의
전과력이 떨어졌다고

00:02:21.666 --> 00:02:23.406

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

00:02:23.914 --> 00:02:29.132

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의
글에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면

00:02:29.232 --> 00:02:33.435
이렇게 조급함이 생기기 마련이고
오해가 생기기 마련입니다.

00:02:35.002 --> 00:02:38.723
때문에 저희는 처음
말씀드렸던 것처럼

00:02:38.823 --> 00:02:44.453
자신의 정기적인 주기를 잡고
해당 포스팅을 해나가야 하는데요.

00:02:45.358 --> 00:02:48.862
하나의 글이 정점을
찍고 떨어지는 시점에서

00:02:48.962 --> 00:02:54.874
또 하나의 글이 트래픽을 높이고
이 글이 또 떨어지는 시점에서

00:02:54.991 --> 00:02:59.790
새로운 글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다
떨어졌다, 높아졌다 떨어졌다를

00:02:59.932 --> 00:03:01.183
반복하게 됩니다.

00:03:01.628 --> 00:03:07.306
이렇게 새로운 글이 예전 글의
트래픽을 커버, 커버, 커버하면서

00:03:08.125 --> 00:03:11.218
지속적으로 상승 곡선을
그리는 평균,

00:03:11.318 --> 00:03:15.581
즉 코스트에버리지라고 할 수
있는 평균 방문자 수 트래픽을

00:03:15.681 --> 00:03:17.361
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

00:03:18.459 --> 00:03:22.679
물론 블로그 콘텐츠만으로도
이 방법은 유효합니다.

00:03:22.779 --> 00:03:26.514
하지만 저희는 조금 더
효과적인 방법을 위해서

00:03:26.614 --> 00:03:28.943
SNS 채널을 이용하는 것이죠.

00:03:29.501 --> 00:03:33.066
처음 블로그를 시작하면서
인지도가 없는 상태에서는

00:03:33.166 --> 00:03:38.264
카카오토리 그리고 페이스북
페이지에 자리를 잡는다는 것

00:03:38.364 --> 00:03:40.992
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.

00:03:41.092 --> 00:03:44.717
물론 블로그가 유명하다고
해서 페이스북에서도

00:03:44.817 --> 00:03:47.719
승승장구한다는 보장도 없고 말이죠.

00:03:48.486 --> 00:03:52.958
그래서 제가 준비한 SNS는
혹시 Vingle이라고

00:03:53.058 --> 00:03:54.814
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.

00:03:55.837 --> 00:03:59.002
토종 한국인이 만든
소셜 미디어입니다.

00:03:59.102 --> 00:04:02.451
예상보다 많은 사용자가
Vingle에서 콘텐츠를

00:04:02.551 --> 00:04:06.122
소비하고 있는 점은
블로그를 처음 시작하면서

00:04:06.222 --> 00:04:09.857
간과하면 안 될 점이라고
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

00:04:10.304 --> 00:04:15.016
이는 Vingle에 직접 접속을
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04:17.936 --> 00:04:23.277
Vingle을 검색해서 접속하게
되면 처음 관심사를 선택하고

00:04:23.377 --> 00:04:27.133
그다음 자신의 메인 페이지를
만날 수 있습니다.

00:04:27.233 --> 00:04:30.670
그 말인즉슨 페이스북이나
카카오스토리

00:04:30.770 --> 00:04:34.866
혹은 인스타그램 같은
SNS는 불특정 다수에게

00:04:34.966 --> 00:04:38.990
내 콘텐츠를 전파하는
것과 달리 Vingle은

00:04:39.090 --> 00:04:44.164
처음부터 내 관심사 그러니까
나와 똑같은 관심사를

00:04:44.264 --> 00:04:47.759
선택한 사람들에게 내 콘텐츠를
보여주게 됩니다.

00:04:47.859 --> 00:04:51.605
때문에 콘텐츠를 구독하고
소비하는 사람들이

00:04:51.705 --> 00:04:53.795
훨씬 많다고 할 수 있겠죠.

00:04:53.895 --> 00:05:00.761
물론 이는 페이스북이나
카카오스토리가 활성화되기 전이라는

00:05:00.861 --> 00:05:03.046
가정을 둔 상태에서 말입니다.

00:05:04.548 --> 00:05:10.088
지금 보이는 Vingle은
제가 네이버 블로그 외에

00:05:10.188 --> 00:05:15.531
인지도가 낮은 워드프레스라는
블로그를 새로 운영하면서

00:05:15.631 --> 00:05:18.866
콘텐츠를 직접 여기에
전파한 모습입니다.

00:05:19.812 --> 00:05:23.423
블로그 내에서는 방문자가
그리 많지는 않지만

00:05:23.523 --> 00:05:25.938
지금 보이는 것처럼
Vingle에서 소비되는

00:05:26.069 --> 00:05:30.154
View, Like, Clip 수는
상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.

00:05:30.812 --> 00:05:35.461
이렇듯 여기에서 일부
사용자만 블로그로

00:05:35.561 --> 00:05:40.031
다시 유입을 한다고 하더라도
이는 처음 블로그를 운영하는

00:05:40.131 --> 00:05:43.289
이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
큰 힘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05:45.185 --> 00:05:49.612
블로그 운영에 있어서
내 콘텐츠를 보다 많은 이에게

00:05:49.712 --> 00:05:53.509
초기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
주어지는 곳이 하나 있습니다.

00:05:53.642 --> 00:05:56.615
바로 네이버 오픈 캐스트입니다.

00:05:56.715 --> 00:05:59.172
바로 네이버 홈페이지에
접속하게 되면

00:05:59.272 --> 00:06:02.177
메인 화면에서 만날 수
있는 메뉴들이고요.

00:06:02.277 --> 00:06:07.623
이는 라이프/취미, 문화/엔터,
IT/비즈, 여행, 요리와 같은

00:06:07.723 --> 00:06:12.125
분야별로 나누어진 상황에서
해당 카테고리로 발행된

00:06:12.225 --> 00:06:18.296
내 글들이 메인으로 노출되는 기회를
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00:06:18.396 --> 00:06:22.944
적게는 2천, 3천 물론 주제에
따라 더 많은 트래픽을

00:06:23.044 --> 00:06:27.949
발생하기 때문에 처음
몇십 명 혹은 몇백 명에 그치던

00:06:28.049 --> 00:06:33.482
방문자 수도 블로그 초기
처음으로 1천 명 이상의

00:06:33.582 --> 00:06:36.689
방문자를 맞이할 수
있는 기회이기 때문에

00:06:36.789 --> 00:06:39.980
오픈 캐스트도 역시
놓치지 말기 바랍니다.

00:06:42.910 --> 00:06:47.417
그리고 최근에 네이버에서
모바일 플랫폼으로 밀고 있는

00:06:47.517 --> 00:06:52.200
네이버 포스트 역시 블로그와
함께 운영하기 좋은

00:06:52.300 --> 00:06:54.636
SNS로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

00:06:54.736 --> 00:06:58.612
네이버 포스트는 모바일
플랫폼이라는 점에서

00:06:58.712 --> 00:07:02.922
모바일에서만 콘텐츠가

소비될 것 같지만 PC에서 검색 시

00:07:03.022 --> 00:07:07.309
네이버 포스트로 업로드한
콘텐츠들이 함께 노출되기 때문에

00:07:07.409 --> 00:07:12.372
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반드시
가져가야 할 SNS 채널입니다.

00:07:12.472 --> 00:07:16.725
또 하나 블로그로
업로드된 영상은 포스트로

00:07:16.825 --> 00:07:20.679
그대로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
별다른 편집 과정 없이도

00:07:20.779 --> 00:07:23.565
동일하게 콘텐츠를
전파할 수 있습니다.

00:07:23.665 --> 00:07:27.209
블로그 운영에 기틀이
잡히고 어느 정도 팬층이

00:07:27.348 --> 00:07:31.762
확보가 되었다면 페이스북
페이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

00:07:31.862 --> 00:07:33.897
채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00:07:33.997 --> 00:07:38.373
지금 보이는 친절한 혜강씨는
PPT 지식 나눔으로

00:07:38.473 --> 00:07:41.603
이미 블로그에서는 구독자
6만 명을 돌파한

00:07:41.703 --> 00:07:44.297
아주 팬층이 두터운 블로거입니다.

00:07:44.702 --> 00:07:49.007
하지만 페이스북 페이지로
같이 연계를 함과 동시에

00:07:49.107 --> 00:07:52.739
더 많은 팬층을 확보할 수
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.

00:07:56.065 --> 00:08:00.840
또한 최근에 가장 핫하다고
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도

00:08:01.705 --> 00:08:05.594
해시태그를 적절히 사용하면
보다 많은 이에게

00:08:05.694 --> 00:08:10.017

내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
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.

00:08:11.407 --> 00:08:15.724

예를 들어서 자신이 요리
내지 뷰티, 여행과 같은

00:08:15.824 --> 00:08:20.369

콘텐츠를 다룬다고 한다면
대표하는 이미지 하나를 작성하고

00:08:20.469 --> 00:08:24.625

아래에 내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는
링크 정도를 남겨준다면

00:08:25.691 --> 00:08:30.455

보다 많은 분, 즉 국내
사용자들뿐만 아니라

00:08:30.555 --> 00:08:34.106

해외 사용자들까지
제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는

00:08:34.206 --> 00:08:36.408

연결고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.

00:08:37.224 --> 00:08:43.409

그렇다면 무작정 여러 태그를
사용하기보다 인스타그램에서

00:08:43.509 --> 00:08:47.973

인기 있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는
방법을 알아야 할 텐데요.

00:08:48.833 --> 00:08:53.822

보이는 것처럼 먹스타그램,
Selfi, 셀스타그램 같은

00:08:54.358 --> 00:09:00.234

특정 인기 태그들은 평소 체크를
하거나 여러 사용자와 함께하면서

00:09:00.334 --> 00:09:03.107

정보를 공유하는
것이 필요하겠습니다.

00:09:03.207 --> 00:09:05.282

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?

00:09:05.382 --> 00:09:07.851

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케아.

00:09:07.951 --> 00:09:12.140

하지만 이케아도 처음에 이벤트
홍보 마케팅에 있어서

00:09:12.240 --> 00:09:15.314

상당히 곤혹을 치렀던
경험이 있다고 합니다.

00:09:16.155 --> 00:09:19.561

각각의 가정으로 배달되는 카탈로그.

00:09:19.661 --> 00:09:24.191

자신들은 이 카탈로그를
보고 구매 소비자들이

00:09:24.291 --> 00:09:27.339

자신의 제품을 사주기를
바랐던 거죠.

00:09:27.439 --> 00:09:32.234

하지만 실제 개봉되지도
않고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

00:09:32.334 --> 00:09:37.026

카탈로그를 보면서 어떻게
이 방법을 해결해야 할까

00:09:37.126 --> 00:09:41.108

고민한 끝에 인스타그램을
포함한 SNS 채널로

00:09:41.208 --> 00:09:45.153

자신의 카탈로그를 촬영한
이미지와 함께 보이는

00:09:45.253 --> 00:09:50.866

해시태그를 작성한 다음
각자의 SNS에 공유하면

00:09:50.966 --> 00:09:55.919

원하는 가구를 무상으로
증정하겠다는 이벤트를 펼쳤습니다.

00:09:56.019 --> 00:09:57.718

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?

00:09:58.564 --> 00:10:02.844

많은 사람이 개봉도 하지
않은 채 쓰레기통에 버려졌던

00:10:02.944 --> 00:10:07.518

그런 카탈로그가 너나 할 것
없이 몰려드는 사용자들 탓에

00:10:07.618 --> 00:10:11.849

동이 났을 정도로 화끈한
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.

00:10:12.583 --> 00:10:16.367

이러한 사례와 같이
갈수록 SNS에서는

00:10:16.467 --> 00:10:19.644

해시태그의 중요성이 날로
부각되고 있습니다.

00:10:19.744 --> 00:10:22.058

이는 블로그의 키워드 선정과도

00:10:22.158 --> 00:10:25.025

어찌 보면 일맥상통하는
부분이기도 합니다.

00:10:26.640 --> 00:10:31.277
여러분이 인스타그램, 페이스북,
카카오스토리와 같은

00:10:31.377 --> 00:10:36.436
SNS로 자신의 콘텐츠를
발행할 때 해시태그를 어떻게

00:10:36.536 --> 00:10:40.520
적절히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
콘텐츠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

00:10:40.620 --> 00:10:42.755
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.

00:10:43.973 --> 00:10:46.992
마지막으로 해시태그를 사용할 때

00:10:47.092 --> 00:10:50.033
이 부분은 반드시
체크하기 바랍니다.

00:10:51.038 --> 00:10:54.048
블로그 그리고 블로그
콘텐츠와 연계한

00:10:54.148 --> 00:10:56.210
해시태그를 활용하기 바랍니다.

00:10:57.620 --> 00:11:01.897
그리고 너무 많은 해시태그,
즉 욕심을 내서

00:11:01.997 --> 00:11:09.135
이 콘텐츠, 이 이미지와 연관 없는
해시태그를 발행했을 경우에

00:11:09.235 --> 00:11:12.448
그 글을 본 사람들은
신뢰도가 떨어져서

00:11:12.548 --> 00:11:16.167
다시는 그 사람의
콘텐츠를 찾지 않는

00:11:16.332 --> 00:11:20.096
그리고 혼란만 가중시키는
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.

00:11:20.196 --> 00:11:21.997
주의하기 바라겠습니다.

00:11:22.097 --> 00:11:27.805
또한 브랜드, 블로그명,
닉네임, 시즌이나 트렌드

00:11:27.905 --> 00:11:32.285
그리고 콘텐츠에 핵심으로

사용된 키워드 같은 것들은

00:11:32.385 --> 00:11:35.786

반드시 해시태그로
발행하기 바랍니다.

00:11:35.886 --> 00:11:41.230

예를 들어서 설날, 파워포인트,
열쓰와 같은 해시태그들로 말이죠.

00:11:41.330 --> 00:11:45.184

지금까지 자신이 왜
블로그를 운영해야 하는지

00:11:45.284 --> 00:11:49.709

그 필요성부터 시작해서
블로그를 꾸미고 디테일한 설정

00:11:49.809 --> 00:11:53.876

그리고 콘텐츠를 제작하고
마지막으로 그 콘텐츠를

00:11:53.976 --> 00:11:59.272

어떻게 전파할 수 있는지에
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.

00:11:59.372 --> 00:12:04.844

여러분 블로그가 낯이 발전해서
저 그리고 관련 분야의

00:12:04.944 --> 00:12:08.757

파워 블로거라고 불리는 분들을
넘어설 수 있는 그 날까지

00:12:08.891 --> 00:12:13.972

모두 블로그를 즐기고 꾸준히
운영해 보기 바랍니다.

00:12:14.072 --> 00:12:17.039

이상 블로그 브랜딩
강사 성창열이었습니다.

00:12:17.139 --> 00:12:18.162

감사합니다.